

불교의 전래와 공인

외래 종교인 불교, 삼국의 사상적 기반이 되다



이차돈 순교비
/ e뮤지엄(국립경주박물관) /

1 개요

인도에서 발생한 불교는 중국을 거쳐 삼국에 전래되었다. 고구려와 백제는 각각 소수림왕(小獸林王, 371~384) 시대와 침류왕(枕流王, 384~385) 시대에 불교가 공인되었고, 신라는 이보다 150여 년 늦은 법흥왕(法興王, 514~540) 시대에 불교 공인이 이루어졌다. 일반적으로 삼국의 국가 체제가 정비되는 시기에 불교 공인이 이루어진 것으로 이해된다.

여기에서 불교의 공인은 공식적으로 전래된 불교를 의미하는 것으로, 불교가 삼국에 처음 전래된 시기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불교가 공인되기 이전인 4세기 후반부터 고구려와 백제, 신라에 이미 불교가 전래되었음을 전하는 여러 기록을 주의해서 살펴보아야 한다.

2 4세기 후반 삼국에 전래된 불교와 고구려·백제의 공인

고구려는 삼국 중에 가장 이른 시기인 372년(소수림왕 2)에 불교가 공인되었다. 전진(前秦)의 왕 부견(苻堅)이 고구려에 사신과 승려 순도(順道)를 보냈는데, 이때 불상과 경문을 함께 보냈다. [관련사료](#) 2년 뒤인 374년(소수림왕 4)에는 승려 아도(阿道)가 진(晉)에서 왔고, [관련사료](#) 이듬해 왕은 최초의 고구려 사찰이라고 알려져 있는 초문사(肖門寺)와 이불란사(伊弗蘭寺)를 창건하여 순도와 아도를 각각 머물게 하였다. [관련사료](#) [관련사료](#)

그런데 고구려에 불교가 공인되기 이전에 동진(東晉)의 고승 지둔도림(支遁道林, 314~366)이 고구려의 도인(高麗道人)에게 보낸 편지가 있어 주목된다. 편지는 지둔 이전에 활동한 중국의 고승인 축법심(竺法深, 286~374)을 소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관련사료](#) 지둔의 생몰년을 고려하면 순도가 고구려에 오기 이전에 중국과 고구려의 고승 사이에 교류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이 확인된다. 이를 통해 소수림왕대 공인 이전에 불교가 이미 고구려에 전래되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불교 공인 이후 고구려에서는 393년(광개토왕 2)에 평양에 9개의 사찰을 창건했다는 기록이 있다. [관련사료](#) 이후 불교가 발전하면서 주요 지역에 다수의 사찰들이 건립되었다고 생각되지만, 관련 기록과 확인되는 유적이 많지 않아 사찰의 구체적인 성격을 파악하기 어렵다. 현재까지 확